

“책장의 책들을 바라보며”

김효준

일반적으로 책을 분류할 때는 장르별로 나눌 것이다. 이 외에도 각자 자신의 책장에서 책을 보면 두꺼운 책과 얇은 책, 소설과 그 외의 책, 다 읽은 책과 중간에 포기한 책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책장에 있는 책들은 구매 후에 읽은 책과 읽은 후 구매한 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수집 취미 중에서 나는 책을 모으는 것을 좋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을 직접 사서 읽는다. 한 번에 한두 권씩 구매할 때도 있고, 모았다가 여섯 일곱 권씩 대량으로 구매 할 때도 있다. 특히 여러 권의 책을 주문 한 후에 택배를 상자를 받아 차곡차곡 쌓인 책들을 꺼낼 때면 마치 엄청난 부자가 된 듯하다.

요즘은 온라인 서점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특정 가격이상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준다. 그런데 그 사은품이라는 것이 나처럼 책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은 거절 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들이어서 간혹 사은품 때문에 책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도 들게 한다. 실제로 민음사 전집 이벤트 때 받은 노트는 검정색 배경에 밀란 쿤데라 작가님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고독에 젖어드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인지라 매번 책을 구매하기는 힘든 점이 많다. 바로 금전적인 부분이다. 간혹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으면 되는데 왜 돈 주고 구매 하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을 때의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와 심지어 다른 사람이 책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불쾌감까지 구구절절히 늘어놓는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결론은 간단하다. 나는 책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다.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책장을 보면 처음 그 책을 접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이 함께 떠오른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의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어진다.

그런데 항상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먼저 구매하면 간혹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흥미 있을 것 같아 구매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왜 돈 주고 샀나 싶을 정도로 영 아닌 경우다. 그때는 정말 돈을 땅바닥에 내버린 처참한 기분이 든다. 한창 인문학 열풍이 불었을 때 특히 심했다. 인문학을 타이틀로 내걸었던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도대체 이게 왜 인문학이란 타이틀을 내걸었으면 어떻게 출판되었는지 의심까지 하게 했다.

내 책장에 읽은 후 구매한 책이 생기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교내 국가근로를 하게 되면서 도서관에 배치되었다. 그러면서 도서관에 대한 모르고 있던 기능과 시설들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읽고 다 읽고 난 후, 이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확실히 느꼈다.

도서관 이용의 즐거움을 알게 된 후에는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곧바로 도서관에서 존재 여부를 검색하였다. 신권이 아닌 이상 책은 언제나 비치되어 있다. 간혹 원하는 책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희망도서신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도서관에 요청을 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단순하게, 없으면 못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도서 신청제도는 나에겐 마치 엄청난 혁명과도 같았다.

예전에는 새 책을 사서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한편의 낙이었다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이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어쩌면 같은 취미를 공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마다 원하는 책을 가져와 읽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 같이 독서 모임을 가지러 온 것처럼 보인다. 시험이 끝나면 또다시 혼자만의 독서 모임을 만들어 책을 읽고, 책장에 보관할 책을 선정할 것이다. 이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두근거린다.